

Bieji Hanyu Yuedu
Keyi Henkaixin



(下) 别急!
韩语阅读
可以很开心

쉽다니

张宝云 编著



北京大学出版社
PEKING UNIVERSITY PRESS

别急！
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张宝云 编著

〔韩〕崔瑞希 审订



北京大学出版社
PEKING UNIVERSITY PRESS

图书在版编目(CIP)数据

别急! 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/张宝云编著. —北京: 北京大学出版社, 2011. 2
ISBN 978-7-301-18383-0

I. ①别… II. ①张… III. ①朝鲜语—阅读教学 IV. ①H559.4

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(2011)第 001822 号

书 名: 别急! 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著作责任者: 张宝云 编著

责任编辑: 张 娜

标准书号: ISBN 978-7-301-18383-0/H · 2735

出版发行: 北京大学出版社

地 址: 北京市海淀区成府路 205 号 100871

网 址: <http://www.pup.cn> 电子信箱: zpup@pup.pku.edu.cn

电 话: 邮购部 62752015 发行部 62750672 编辑部 62759634 出版部 62754962

印 刷 者: 北京大学印刷厂

经 销 者: 新华书店

787 毫米×980 毫米 16 开本 11 印张 215 千字

2011 年 2 月第 1 版 2011 年 2 月第 1 次印刷

定 价: 28.00 元

未经许可, 不得以任何方式复制或抄袭本书之部分或全部内容。

版权所有, 侵权必究

举报电话: (010)62752024 电子信箱: fd@pup.pku.edu.cn

차 례 目 录

1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001
우공(寓公)이 산을 옮기다 愚公移山 / 001	호랑이와 곶감 老虎与柿饼 / 005
아들의 눈물 儿子的眼泪 / 003	
명작 감상 名作欣赏	009
흥부와 놀부 兴夫与游夫 / 009	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013
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(王建) 高丽太祖——王建 / 013	

2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019
할아버지와 구두 老人与皮鞋 / 019	왜 나를 찍어요? 为什么拍我? / 023
따질 것 없습니다 无可厚非 / 021	혹부리 영감 长瘤的老头儿 / 024
명작 감상 名作欣赏	027
미운 오리 새끼 丑小鸭 / 027	전우치전(田禹治傳) 田禹治传 / 030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033
『삼국사기』와 김부식(金富軾) 《三国史记》与金富軾 / 033	



别
急
!
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위대한 임금 세종대왕(世宗大王) 一代明君——世宗大王 / 037

3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039
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世上最美的 画卷 / 039	삶의 목표(目標) 生活的目标 / 042 세상에서 가장 귀(貴)한 보물 世间至珍 / 044
두 친구 사이 两个朋友 / 041	
명작 감상 名作欣赏	048
심청전(沈淸傳) 沈淸传 / 048	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053
오백 년 조선을 세운 임금 이성계(李成桂) 朝鲜朝开国之君——李成桂 / 053	

4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061
여우에게 속은 까마귀 乌鸦与狐狸 / 061	미안해, 사랑해, 그리고 용서해 对不起, 我爱你, 原谅我 / 067
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不要以貌取人 / 063	코끼리 코는 왜 길까? 大象的鼻子为什么长? / 070
못 말리는 형제애(兄弟愛) 兄弟情深 / 064	
먼지 낀 안경 蒙尘的眼镜 / 066	
명작 감상 名作欣赏	073
엄지 공주 拇指姑娘 / 073	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078
무학대사(無學大師)와 이성계 无学大师与李成桂 / 078	
한석봉과 어머니 韩石峰戒母 / 079	

5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081
새끼 원숭이 小猴子 / 081	새우등이 꼬부라진 이유
세계의 진주(珍珠) 상하이	虾背为什么是弯的? / 087
东方之珠——上海 / 084	
명작 감상 名作欣赏	091
옹고집전(壅固執傳) 壅固执传 / 091	성냥팔이 소녀 卖火柴的小女孩 / 095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097
동방의 훌륭한 학자 퇴계 이황(退溪李滉)	东方大学士——退溪李滉 / 097

6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101
수탉과 여우 公鸡与狐狸 / 101	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까닭은?
공자의 후회 孔子与颜回 / 103	猴子的屁股为什么红? / 107
모래밭에서 진주(珍珠)를 찾듯이	
沙滩寻贝 / 106	
명작 감상 名作欣赏	111
춘향전(春香傳) 春香传 / 111	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117
조선 시대 유학의 큰 기둥 울곡(栗谷) 이이(李珣) 朝鲜儒学泰斗——栗谷李珣 / 117	
조선 시대의 대표적(代表的)인 실학자 다산(茶山) 정약용(丁若鏞)	
朝鲜实学思想集大成者——茶山丁若鏞 / 120	



別急!
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7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122
우물 안 개구리 井底之蛙 / 122	할미꽃 老姑草 / 126
남을 돕는 마음 常持助人心 / 125	공원(公園)에서 있었던 일 公园里的故事 / 128
명작 감상 名作欣赏	132
콩쥐팍쥐전 黄豆红豆传 / 132	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140
불멸의 영웅 이순신(李舜臣) 永远的李舜臣 / 140	

8 부

인간 극장 人间万象	146
잔디의 노래 丝草之歌 / 146	
도둑의 어머니 盗贼之母 / 149	
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国王的耳朵是驴耳 / 150	
아내의 교훈(敎訓) 妻训 / 154	
명작 감상 名作欣赏	157
어린 소년 小少年 / 157	박씨전(朴氏傳) 朴氏传 / 161
역사 이야기 历史故事.....	165
민중(民衆)의 명의(名醫) 허준(許浚) 名医许浚 / 165	
后记	170

1 부

인간 극장

ㄱ 우공(禹公)이 산을 옮기다 ㄴ



옛날 중국에는 “우공이 산을 옮긴다.”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.

옛날 화북지방(華北地方) 북산(北山)에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.

그의 집 남쪽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.

그 하나는 태항산(太行山)이었고 또 하나는 왕옥산(王屋山)이었다.

우공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두 큰 산을 팽이³로 파⁴ 없애기로 결심하였다.

그런데 지수(智叟)라고 하는 영감⁵은 이것을 보고 비웃으면서

“당신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⁶을 하오. 당신들 부자 몇이서 이렇게 큰 산 두 개를 파 없애려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⁷ 수 없는 일ियो.”

라고 말하였다.

1 드나들다 进进出出

2 가로막다 拦住, 堵住

3 팽이 铍, 锹

4 파다 挖

5 영감 老头儿, 老叟

6 어리석은 짓 愚蠢的行为

7 이루어지다 实现, 完成



別急!
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이 말을 들은 우공은

“내가 죽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죽으면 또 손자가 있을 것이요. 자자손손은 끝이 없는 것이지요. 이 두 산이 높기는 하지만 이 산이 더 높아질 리(理)는 없는 거요. 파내면 파낸 만큼 줄어들 텐데 왜 파 없애지 못한단 말이오?” 하고 대답했다.



우공은 지수의 그릇된⁸ 생각을 반박(反駁)하고 조금도 동요(動搖) 없이 매일 산을 뒀다.

이 일은 하느님을 감동시켜 두 신선(神仙)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 두 산을 등에 지⁹고 다른 데로 옮기도록 하였다.



깔깔 유머

목사님의 휴대폰

목사님이 설교(說敎)를 한창¹⁰ 열심히 하고 있는데 “빠리리~” 하고 핸드폰 소리가 예배당(禮拜堂) 전체에 울려 퍼졌¹¹습니다.

그런데 한참 동안 울려도 아무도 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?

그러자 신자¹²들은 “누구야, 누구야?” 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.

목사님도 짜증을 내기 일보(一步) 직전이었습니다.



8 그릇되다 错误的

9 등에 지다 背在背上

10 한창 正是, 正好; 正浓, 正酣

11 퍼지다 散开, 扩散; 流传, 流行

12 신자 信徒

한참 후 그 휴대전화는 바로 목사님 주머니¹³ 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걸 뒤늦¹⁴게 알게 되었습니다.

목사님은 호주머니¹⁵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

“아, 하나님이에요? 제가 지금 설교 중이거든요. 예배 끝나면 바로 하나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.” 라고 말했습니다.

아들의 눈물

“어디서 난 옷이냐? 어서 사실대로 말해 봐라.”

환경미화원(環境美化員)인 아버지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입고 들어온 고급 브랜드¹⁶의 청바지를 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계속 다그쳤다¹⁷.

부모님이 다그치자 결국 아들은 모든 사실을 다 말해 버렸다.

“죄송해요,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훔쳤어요.”

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¹⁸고 말았다.

“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…….”

잠시 뒤 아버지가 정신을 가다듬¹⁹고 말했다.

“환경이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.”

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(自首)시켰다.

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고 결국 아들은 법정(法庭)에 서게 되었다.

13 주머니 口袋, 兜, 包

14 뒤늦다 晚, 迟

15 호주머니 衣袋, 兜儿, 口袋

16 브랜드 [brand] 品牌

17 다그치다 追究, 追问; 加紧

18 털썩 주저앉다 扑腾一屁股坐下

19 정신을 가다듬다 振作精神



別急！
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그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친 것에 마음 아파하다가 그만 심장마비(心臟痲痺)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.

재판(裁判)이 있는 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울먹었다²⁰.

“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올바른²¹ 사람이 되도록 엄(嚴)한 벌을 내려 주세요.”

아들은 눈물을 흘렸다.

“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. 흑흑흑.”

이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모두 숙연(肅然)해졌다.

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다.

“불처분(不處分)입니다. 팡~팡~팡.”

벌을 내리지 않은 뜻밖의 판결에 어리둥절해²²하는 당사자(當事者)와 주위 사람들에게 판사가 그 이유를 밝혔다.

“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.”



깔깔 유머

앵무새와 아가씨

아주 못생긴 아가씨가 길을 걷고 있는데, 한 상점(商店)에서 앵무새가 불렀다.

“이봐, 아가씨! 진짜 못생겼다.”

못생긴 아가씨는 화가 났지만 참고 그냥 지나쳤다²³. 다음날 다시 그 상점을 지나치는데, 앵무새가 다시 소리쳤다.



20 울먹이다 哭喪着臉, 欲哭

21 올바른다 正直, 不歪斜

22 어리둥절하다 迷糊, 發蒙; 不知所措

23 지나치다 經過; 放過; 過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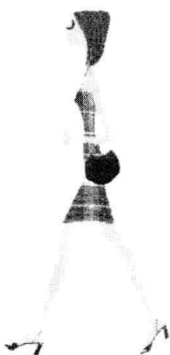
“이봐, 아가씨! 거참²⁴ 진짜 못생겼네.”

못생긴 아가씨는 다시 참고 지나갔다. 다음날 상점을 지나는데 앵무새가 또 말했다.

“이봐, 아가씨! 정말 무지무지하²⁵게 못생겼다!”

못생긴 아가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상점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다.

“이것 보세요! 도대체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이렇게 버릇없이 말해요?”



상점 주인은 사과를 하며 다시는 그 말은 안 하도록 교육시키겠다고 했다.

다음날 못생긴 아가씨가 상점 앞을 지나가는데, 앵무새가 또 부르는 게 아닌가.

“이봐, 아가씨!”

“왜?”

그러자 앵무새가 배시시²⁶ 웃으며 말했다…….

“말 안 해도 알지?”

호랑이와 귤감²⁷

옛날 어느 숲 속에 사납고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.

“어흥! 저리 비켜²⁸!”

이렇게 말하며 호랑이는 자기보다 작고 힘이 없는 동물들을 괴롭혔어요.

어느 날,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 숲 속을 돌아다녔어요. 마침 생쥐²⁹ 한 마리가 보였어요. 호랑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.

24 거참 实在, 真是

25 무지무지하다 惊人, 很, 极

26 배시시 呵呵, 嘿嘿

27 귤감 柿饼, 柿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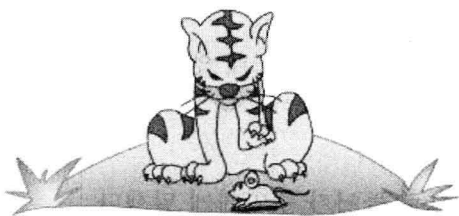
28 비키다 让, 走开

29 생쥐 小家鼠, 鼯鼠



別急!
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

“어흥, 배고파! 쥐라도 잡아먹어야겠다.
어흥!”

쥐는 말했어요.

“호랑이님, 저는 너무 작아서 먹어도 배
가 안 부를 거예요. 제가 황소³⁰ 있는 곳을
알려 드릴게요.”

“황소라고? 좋다. 거기가 어디냐?”

“저 아래 집이 하나 있어요. 그 집에 커다란 황소가 있답니다.”

호랑이는 쥐가 알려준 집으로 갔어요. 정말로 그곳에서는 황소 한 마리가 쿵쿨³¹
잠을 자고 있었어요.

호랑이는 생각했어요.

‘와! 정말 큰 황소구나! 오늘 저녁은 배부르게 먹겠군.’

호랑이는 군침을 흘렸³²어요.

그때였어요.

“으앙! 으앙!”

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.

“아가야, 그만 울어라. 안 그러면 호랑이가 어흥! 하며
잡아간단다.”

엄마는 아기를 달래³³며 말했어요. 그래도 아기는 울음
을 그치³⁴지 않았어요.

호랑이는 생각했어요.

“아니? 아기가 날 무서워하지 않네.”

그때 엄마가 말했어요.

“아가야, 콧감 줄게. 착하지. 그만 울어.”

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뚝³⁵ 그쳤어요.



30 황소 黄牛

31 쿵쿨 呼呼地

32 군침을 흘리다 流口水

33 달래다 哄, 哄劝

34 그치다 停, 停止

35 뚝 嘎噠一下, 戛然

호랑이는 생각했어요.

‘꽃감을 준다고 하니까 울음을 그치네. 뭘지는 몰라도 나보다 힘이 센 게 틀림없어. 안 되겠다. 얼른 황소나 잡아가야지. 이러다 꽃감한테 당하겠어.’

호랑이는 슬슬³⁶ 황소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. 그때 검은 그림자³⁷가 호랑이에 게 다가왔어요.

“어이쿠! 꽃감인가 보다.”

호랑이는 그 그림자가 꽃감인 줄 알고 놀라서 꼼짝도 못했³⁸어요.

그러나 그 그림자는 꽃감이 아니라 황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어요.

도둑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거리³⁹다가 잘못해서 호랑이의 목을 잡았어요. 호랑이를 황소로 착각(錯覺)한 거예요.

“어이구! 난 죽었다.”

호랑이는 놀라서 펄쩍 뛰⁴⁰었어요.

도둑도 황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어요.

호랑이는 몸을 세차⁴¹게 흔들고 경충경충⁴² 뛰었어요. 그러나 도둑은 떨어지지 않았어요.

결국 숨을 헉헉거리⁴³며 호랑이는 말했어요.

“헉헉! 정말 꽃감이란 놈은 무섭고도 질긴⁴⁴ 놈이구나.”

날이 밝자, 도둑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인 걸 알았어요.

“아이고, 이 일을 어쩌나. 빨리 도망쳐야겠



36 슬슬 悄悄地, 轻轻地

37 그림자 影子, 阴影

38 꼼짝도 못하다 一动也不能动

39 더듬거리다 摸; 结巴, 口吃

40 펄쩍 뛰다 一跳一跳的; 暴跳

41 세차다 猛烈, 强劲, 凶

42 경충경충 一蹦一跳地

43 헉헉거리다 喘不过气来

44 질기다 艮, 硬, 结实, 韧挺



别急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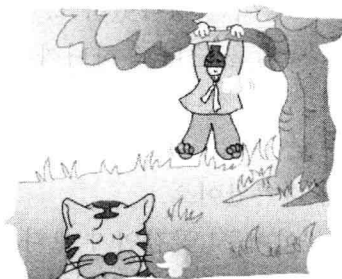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다.”

도둑은 커다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에 매달렸어요.

“휴, 살았다. 죽을 뻔했네.”

호랑이도 숨을 헉헉거리며 동굴(洞窟)로 돌아왔어요. 그리고 다시는 꽃감이 사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답니다.



깔깔 유머

목사님과 사자

어느 날 산길을 가던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⁴⁵고 있었다. 그는 시내를 지나 숲 속으로 도망가다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.

마침내 희망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. 사자가 곧 그를 붙잡⁴⁶을 태세(態勢)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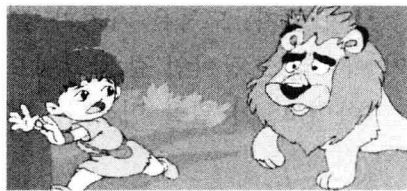
그래서 그는 돌연(突然) 몸을 돌려⁴⁷ 그 짐승을 향해 무릎을 꿇⁴⁸었다.

“주(主)여,” 그는 필사적(必死的)으로 기도했다.

“이 사자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⁴⁹.”

그러자 사자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.

“이렇게 근사한⁵⁰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, 하나님.”



45 쫓기다 被追赶

46 붙잡다 抓, 逮住

47 돌리다 转, 扭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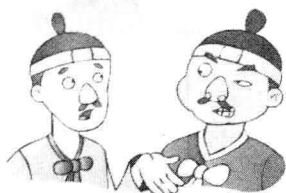
48 무릎을 꿇다 跪; 屈膝, 屈服

49 -옵소서 (终结词尾, 由表示恭敬的词尾“-옵”和表示拜托、祈愿的“-소서”结合而成, 用于谓词词干之后, 表示“郑重的拜托或者祈愿”) 请……, 肯请……

50 근사하다 不赖的, 带劲, 像回事儿的

명작 감상

흥부와 놀부



옛날 옛날에 흥부(興夫)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.
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했지만, 형 놀부는 심술(心術)이
사나웠⁵¹어요. 매일 애들을 때리고 나쁜 짓만 했지요.

하루는 아버지가 두 형제를 부른 후,
“내가 죽거든 재산을 똑같이 둘이 나누⁵²어 가져라.” 라

고 말했어요.

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못된 형 놀부는 흥부와 흥부 부인, 그리고 9명의
자식들을 내쫓⁵³았어요.

“이 일을 어찌면 좋아요?”

“하늘도 무심(無心)하지 않으면, 어디 우리 식구(食口)가 죽기야 하겠소?”

흥부는 놀부 형을 원망하지 않고, 조그마한 초가집⁵⁴을 한 채⁵⁵ 지었어요.

“아빠, 배고파.”

51 사납다 歹毒, 狠; 凶, 凶猛

52 나누다 分, 分成, 劈开

53 내쫓다 赶出去, 撵走, 驱逐

54 초가집 草舍, 茅舍, 草屋

55 채 幢, 栋



别急!

韩语阅读可以很开心(下)

“아빠, 나도요.”

9명의 아이들이 춥고 배고픔에 울었어요.

“조금만 기다려라. 날 새⁵⁶면 큰아버지 댁에 가서 쌀 좀 얻어 오마.”

홍부는 놀부의 집에 찾아갔어요.



“형님,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어요. 쌀 조금만 주세요.”

그때 밥을 푸⁵⁷던 놀부 마누라가 갖고 있던 주걱⁵⁸으로 뺨을 때렸어요.

“에잇!”

주걱에 묻⁵⁹었던 쌀이 뺨에 묻자,

“형님, 이쪽 뺨도.”

“뭐라? 요놈이!”

홍부는 매⁶⁰만 실컷⁶¹ 맞고 돌아왔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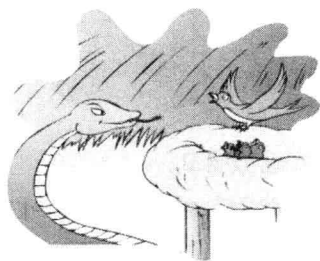
배고프고 추운 겨울도 가고 따스한⁶² 봄날이 되었어요.

제비⁶³ 부부 두 마리가 홍부네 집에 집을 짓고 아기 제비를 낳았어요.

그러던 어느 날 요란스런⁶⁴ 울음소리에 제비집을 살펴보니,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아기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혀를 날름거렸⁶⁵어요.

“이런 나쁜 놈!”

홍부는 몽둥이⁶⁶로 뱀을 때려 쫓아버렸어요.



56 날 새다 冒亮, 破晓

57 밥을 푸다 盛饭, 舀饭

58 주걱 饭勺儿, 饭铲儿

59 묻다 附着, 沾染

60 매 棒, 棍

61 실컷 尽情地, 痛痛快快地, 充分地

62 따스하다 温暖, 温馨, 和煦

63 제비 燕子

64 요란스럽다 喧天

65 혀를 날름거리다 吐着信子, 吐着舌头

66 몽둥이 棍子, 棒子